

‘로또 청약’ 뒤편… 잠래아·동작구수방사 주목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21일 특공 국민평형 84㎡ 최고 19억870만원 분상제 적용… 10억 안팎 차익 기대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 오늘 특공 전용면적 59㎡… 분양가 9억 안팎 인근 래미안트윈파크, 15억 거래

당첨만 되면 수 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 지속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에도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규제나 공공분양 등으로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최고 35층으로 총 2678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589세대다. 주택형별로는 ▲43㎡ 114세대 ▲59㎡ 118세대 ▲74㎡ 35세대 ▲84㎡ 297세대 ▲104㎡ 25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투시도.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분양 홈페이지

세대 등이다. 입주하는 내년 12월로 예정됐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붙어있고, 2호선과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도보권에 잠실초가 있고, 서울아산병원과 롯데월드몰 등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좋은 입지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최고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는 3.3㎡당 5409만원이다.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 15억 2260만원, 84㎡ 19억870만원이다. 신

천동에서는 입주 17년차인 잠실 파크 리오가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잠실동에서는 2008년에 입주한 잠실엘스가 27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중에서는 지난주 ‘디에이치 대치 에펠루이’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25대 1에 달했다.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로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공공분양에서도 로또청약이 대기 중이다.

LH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수방사 공

공분양주택이 오는 14일 특별공급, 15일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이번 공공분양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면서 서울 중심지인 데다 한강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다. 총 556세대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은 263세대다. 전용면적은 모두 59㎡다. 당초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 중 211가구만 분청약을 신청하면서 다음 주에 52세대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타입과 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억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트윈파크는 59㎡가 지난 8월 15억 1000만원에 거래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분양전망지수는 수도권이 121로 전월 대비 3.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치(100)를 크게 웃돈 데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 6월 121.8포인트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이라면 분양만 하면 대부분 완판될 수 있다는 지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것과 HUG의 분양 보증심사 등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점 때문에 신축 단지에 수요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한화손해보험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정신건강 특약 4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이 여성보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개발된 특약들은 스트레스 관련 대표 질환인 식사(섭식), 수면, 정신장애를 별도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올해 11월 선보일 신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탑재될 예정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식사장애입원직접 치료비 특약은 정신건강질환 중 여성 환자수 비율·치사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질환인 ‘식욕부진’과 ‘폭식증’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보장한다.

이번 4종의 배타적 사용권 추가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에 총 11건을 확보하게 됐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장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판매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불린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11월 출시 예정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여성보험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 1600팀 3200명 참가

삼성생명이 배드민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2024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배드민턴 페스티벌은 삼성생명이 배드민턴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다.

이번 대회는 총 1600팀, 32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급수별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으로 진행됐다. 부자팀, 모녀팀 등 가족끼리 팀을 꾸려 참가하는 ‘패밀리’ 종목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코트 위에서는 삼성생명 소속 선수들이 펼치는 시범경기가 이뤄졌다. 시범경기가 끝난 뒤에는 안세영, 김원호 등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인회가 열렸다.

/김주형 기자 gh471@

고금리에 ‘헤자카드’ 실종… 금리 인하에도 출시 어려워

가맹점수수료 동결 여부 불투명 자금조달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영업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고금리 여파에 ‘헤자카드’ 단종과 무이자할부 축소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7084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동기(6434억4100만원) 대비 10% 증가했다. 상반기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7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프리미엄 카드’가 자리 잡고 있다. 연체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

금 연회비 수익과 함께 소비여력이 넉넉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는 15만~200만원까지로 구성했다.

반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헤자(제값 이상을 하는 가성비 좋은 상품)카드 단종 수순을 밟았다.

카드업계는 고금리 기조 이전인 지난 2021~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성은 낮지만,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헤자카드 중심의 마케팅을 펼쳤다. 올 상반기 단종된 신용카드(282종)는 지난해 단종된 신용카드(458종)의 61.6%에 이른다.

카드업계가 헤자카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달비용’과 ‘가맹점수수료’다. 카드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채) 금리가 오르면서

판관비 부담이 커졌다. 가성비 혜택을 내놓기 어려워진 것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당국 주도 아래 가맹점수수료를 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인하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만큼 연회비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세운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때 AA+ 등급의 여전채 금리가 연 5%를 웃돌았다. 기준금리 인하 전 연 2%대로 자금을 조달한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헤자카드 부활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카드사의 조달부담이 낮아질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3.25%로 결

정했다.

카드업계에선 한동안 과거와 같은 헤자카드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연내 여전채 금리가 지난 2022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가맹점수수료 동결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건전성 확보 또한 요구된다. 올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누적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연체율이 함께 올랐다. 대손비용 확대 부담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 조달 부담이 여전히 가성비 카드는 자칫 역마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며 “한동안 헤자카드가 나오더라도 과거와 같은 1만~2만원 수준의 연회비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금융, 괴산에 97번째 어린이집 개원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충청북도 괴산군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은 97번째 어린이집이다.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은 괴산군 대서리 ‘괴산미니복합타운’내에 위치

하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사라져가는 옛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넓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 마을과 같은 풍경이 연상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949.78㎡, 지상 2층 규모로 총 122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보육실 9개를 비롯해 유희실, 중정 놀이터, 자연 놀이터, 옥상 놀이터 등 여러 외부 공간을 조성했다.

강성목 하나금융 부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개원식에 참석한 강성목 하나금융 부회장(맨 뒷줄 왼쪽 네번째)이 송인현 괴산군수(다섯번째)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어린이, 내외빈들과 함께 97번째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일과 가정의 양립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소멸 위기 문제해결에 일조하는 초

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